

밀레니엄과 불교의 시간관

요즘을 천년을 뜻하는 밀레니엄이라는 말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하다못해 패션을 하여도 '밀레니엄 콜렉션'이라고 하며, 신혼부부 사이에는 '밀레니엄 베이비'가 관심이다.

내년에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은 '밀레니엄 학번'을 갖게 되며, 무슨 행사를 하여도 '밀레니엄 행사'로 불려야 직성이 풀린다. 정보통신부도 '밀레니엄 우포'를 발행한다고 하며, 컴퓨터도 '밀레니엄 버그' (천년충) 때문에 난리다. 인터넷에서 밀레니엄을 검색해 보니 밀레니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 웹서버도 3,812건이나 된다. 가히 밀레니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 웹서버도 3,812건이나 된다. 가히 밀레니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 웹서버도 3,812건이나 된다.

확실히 요즘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업주의이다. 소위 정보화 사회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지식을 상품화하여 널리 유통시키는 것이며, 이른바 생명공학도 생명을 물질로 환원시키고 이를 상품화하는 데에 근본 취지가 있다. 상업주의는 이제 우리의 삶에 깊이

침투하여 우리의 정신마저 지배하고 있는 듯 보인다. 천년의 세월을 상품화하고 있는 정치와 자본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치열한 인간의 삶의 과정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미래를 낙관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

이제 우리는 밀레니엄의 현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엄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밀레니엄이라는 개념의 바탕에 놓인 사고방식을 꿰뚫어 보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소박하게는 저녁에 그날의 일을 되돌아보고 아침에 하루의 일을 계획한다. 이러한 점은 해가 바뀔 때에 더욱 명료하게 나타난다. 신년을 맞을 때에는 우리의 반성과 결의가 그만큼 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고난을 예측한다 할지라도 두려운 생각을 갖지는 않는다. 예측된 고난이 들수록 우리는 이를 감내하도록 마음을 더욱 다잡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은 하루 또는 일년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또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시간

의 단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그래서 그 과정 또는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엄청난 시간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미지에 대한 공포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근거 없는 예언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등 이른바 세기말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밀레니엄이 항상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짐이 벗겨져서 세계가 그려지기도 한다. 인간의 허황한 욕망이 무지를 바탕으로 마음대로 나래를 펴는 것이다. 그래서 희망이 사실로 간주되고, 새 천년은 지복(至福)의 천년으로 제시된다. 특정한 종교가 성행하는 것은 바로 이 때이다. 그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노래하고 천년왕국을 꿈꾼다. 상업주의가 근거 없는 낙관론을 유포시키며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밀레니엄의 이러한 측면을 반영한다.

한편으로 우리가 건강한 지성을 갖고 있을 때 밀레니엄의 인식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인

불교시론



정후영
(충북대 철학대 교수)

생의 단계 단계에서 지나온 과정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듯이, 인류의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코자 하는 결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밀레니엄의 개념은 천년왕국의 이념에 드러나 있는 것 같이 전통적으로는 미래의 견지에서 현재의 의미를 무화(無化)시키는 것으로 기능하여 왔다. 이상세계를 검증될 수

“ 불교는 '지금 이곳' 중시 과거-현재-미래 불가분 관계로 연결 ”

없는 미래에 설정함으로써 현재를 하찮은 것, 의미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끔 하였던 것이다. 종말론적 사고, 목적론적 사고 또한 현재를 소외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맥락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밀레니엄의 사유 속에 우리의 현재의 삶이 자리잡을 곳이 없다. 그러나 미래는 현재의 결과가 아닌가. 과거가 현재 속에 응축되어 있듯이, 미래는 현재 속에 그 싹을 갖고 있는 것이다. 과거·현재·미래는 공존하지 않는 직선의 세 계열 또는 세 계열의 분리된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 안에서 불가분리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과거·현재·미래는 현재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주체적 인간의 삶의 과정이다. 그것은 더 이상 쪼개지 않는다. 하나의 주체 속에 통일되어 있는 것이다.

불교는 지금 이곳(here and now)을 중시한다. 그렇다고 하여 과거·미래 또는 다른 곳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과 공간이 주체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불교는 내 안에 모든 시간과 공간이 응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부처님은 태어나신 직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여기에서 '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부처님 자신을 배타적으로 지칭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장구한 역사와 무한한 공간 속의 한 존재자이면서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절대주체로서의 자기인식을 담고 있는 말씀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환적 구조를 갖는 불교의 시간관은 단순한 순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불교의 시간관은 영원의 시간이 현재의 나의 실천 속에서 집약되어 있음을 가르친다. 윤회와 업의 이론 또한 우리가 역사의 창조자임을 역설하며, 우리가 하여금 진정으로 역사에 책임 있는 자가 되기를 요구한다. (구사론)은 우주의 창조도 중생의 활동(satva-karman)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이제 밀레니엄에 관한 논의는 불교인으로서 역사의 주체로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는 말로 바뀌어야 한다.

목어
임진왜란의 피해는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 일본이 침략해 온다는 정보를 왜곡한 김성일이 의해 가중되었고, IMF 관리체제는 당시 여당의 인기와 선거 전략을 위해 원화의 가치를 방어한다는 무모한 전략으로 귀한 외화를 낭비하여 위기를 가중시켰다. 이순신장군을 괴롭힌 것은 왜군보다는 오히려 장군의 공을 사뭇한 고관들이었고, 이때 왜군과 싸워 공을 세운 의병장들은 시기의 대상이 되어 숙청되거나 추방되었다. 또 이순신 장군에게 힘을 주려는 것만 그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 하여 오히려 역적으로 몰아 학살시키고 왜군이 재차 침입하자 할 수 없이 백의종군하여 싸우게 했다.

IMF 관리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은 물론 여야가 합심해서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태에 마땅히 책임져야 할 전직 대통령이나 현 야당은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오히려 사사건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발목을 잡는 채 지

무책임한 사람들
역감정을 부추기기도 한다. 말로는 국민이라 하면서도 임진란 당시의 무책임한 고관들과 다를 게 없는 행동이다. 독 속의 계를 한 마리만 넣어 두었을 때는 거이 혼자 힘으로 빠져 나오는데 두 마리를 넣어 놓으면 놓아가지는 못한다. 한국의 지형은 '독 속의 계'로 표현되곤 하는데, 아마도 한국인은 오랜 시대와 해국 속에서 독 속의 계와 같은 심사를 갖게 된 것 같다. 결국 원군, 김성일도 왜군과 싸우다 죽었다. 안타까운 것은 기왕 그럴 바에야 이순신을 비롯하여 여러 의병장과 힘을 합쳐 싸웠어야 했는데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만 보다가 역사에 오명을 남긴 것이다.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공공연하게 지역감정을 선동하여 민족분열을 조장하는 정치꾼들도 틀림없는 한국인이므로 최소한의 양심은 있을 것이고 스스로가 반민족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는 깨닫지 못한 것이다. 독 속에서 '팔을 안으로 굽는다'는 비생산적 사고가 관을 치는데, 우리는 독을 깨고 나와 큰 세계로 눈을 돌려야만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다.

김응운(한양대 명예교수·본지 논설위원)

상호이해 기여...공동선언 실천부족

한-일 불교교류 20년 성과와 과제

한중일 불교벨트 형성... '관광성' 비판도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이하 한일불교협, 이사장 홍파스님)는 77년 일본의 제안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한국측 회장은 남채스님(당시 태고종 총무원장), 총재는 서용승스님이었다. 79년 일본 증상사에서 한일불교협 첫 대회가 열렸다. 이 때 한국에서는 11개 종단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후 한-일 두 나라의 불교대표들은 3회 대회 이후 2년 동안 대회를 열지 못했다. 두 나라를 번갈아 오가며 매년 대회를 치러왔다.

94년 대회에서 한-중-일 불교우호 교류대회를 개최기로 의견을 모으고, 사회주의권에 있던 중국불교를 국제무대로 끌어내 동북아시아에서의 3국 불교벨트를 형성한 것이 꼽힌다. 한-중-일 대회는 95년 북경 첫 대회에 이어 96년 서울, 97년 교토대회로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20여년 동안 대회를 개최하며 양국 불교인의 우호증진,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매년 한일불교문화교류 대회를 열지만 '관광성 교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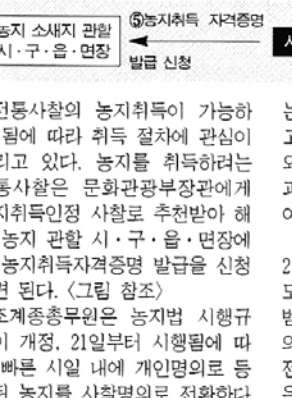
머물렀다는 비판도 광배해 있다. 참가자들의 친선도로 이상의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매년 공동선언문이 나오지만 '선언적' 의미에 그칠 뿐 실천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평가는 귀담아 들어야 할 지적이다. 97년 대회의 경우 '고대 한일불교의 교류'라는 주제로 대회를 개최하고 일본 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문화재 실태파악을 협의했으나, 후속 조치는 여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회 이후 유아무이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공동선언 실천위원회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일불교협에는 조계종을 비롯한 각 종단의 대표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만큼 종

단의 총책에도 반영돼야 한다. 한일과거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도 비판의 초점이 되고 있다. "한일 과거사 가운데 일본불교의 한국침략 교두보 역할에 대한 평가가 없는 한일 불교문화교류는 절대 기밀 본"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위안부문제는 현재도 마무리되지 않은 '진행형 과거사'이다. 25~27일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주년 기념대회를 계기로 한일불교협은 새롭게 전환해야 할 시점이 이르렀다. 이제는 새로운 주제의 채택보다 과거 두 나라 불교계가 의견을 같이 했던 주제에 대해 실천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개정 농지법 21일 시행

정재 보호 '청신호'

개인명의 등록 농지 사찰명으로 전환



전통사찰의 농지취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취득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전통사찰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농지취득신청 사찰로 추천받아 해당 농지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그림 참조)

이에 연결한 시·군이다. 이에 따라 불교재산 관리 방식을 위한 법적인 장치를 확보했다. 조계종의 경우 지치단체 또는 정부의 개발 계획 및 도로 개설 등에 따른 농지수용으로 대토 농지를 취득했으나, 전통사찰의 농지 취득이 불가능해 주지 또는 연고자 명의로 농지를 등기했다. 이면적이 2백64개 사찰 24만2천여명에 이르며, 주지 교체 등에 따라 망실의 우려가 있었다. 정성운 기자

남북 종교교류 지원 종교화합등 역할 다해야

종무실 축소 됐지만

1 종무원, 1 과가 폐지되는 선에서 문화관광부 종무실 축소가 마무리됐다. 종무실은 이에 따라 불교와 민족종교, 기독교와 외래종교로 나뉘었던 종무원 업무를 1명이 담당한다. 종교연합단체 지원 등의 업무는 말았던 종무총괄과 폐지가 확실시된다. 종무총괄과의 업무는 종무 1, 2과로 분산된다. 종무실 인원은 28명에서 21명으로 줄어든다.

조계종 총무원은 종무실 축소에 대해 "한성도 반대도 할 수 없는 개편"이라며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종교인구는 인구의 절반을 넘는다는. 그만큼 종교단체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국가목표의 구현과 종교계는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정부와 종교계와의 불편한 관계"라는 말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정부와 종교계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위한 종무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종교간 화합, 반사회적 종교 발흥의 억제도 정부기관에서는 종무실의 몫이다. 우리 사회에서 종교간의 심각한 갈등표현은 아직 없었으나, 앞으로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어느 때보다 빈번한 남북 종교교류의 지원도 당면과제다. 기구가 축소됐다고 해서 종무행정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성운 기자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 불자가 앞장섭니다.

佛紀 2543년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본사

쌍계사

사부대중 일동

부방장 초우 대화상
전계사 현산 대화상
주지 월파 대화상

총무국장 시공
교무국장 명현
재무국장 주원
포교국장 도연
호법국장 지견

총림대중 일동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8번지
전화 : 0595)883-1901
FAX : 0595)883-6084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노천 월하 대종사

부방장 초우 대화상
전계사 현산 대화상
주지 월파 대화상

총무국장 시공
교무국장 명현
재무국장 주원
포교국장 도연
호법국장 지견

총림대중 일동

▶ 경남 양산군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전화 : 0523)382-7182~7
FAX : 0523)382-7196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서용
주지 다정

총림대중 일동

▶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번지
전화 : 0685)392-7502
팩스 : 0685)392-2081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 본사

승보총찰 송광사

방장 범일 보성
주지 현지

총림대중 일동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번지
전화: 0661)755-0107
팩스: 0661)755-0408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흥사

주지 보선
부주지 몽산
총무 무은
교무 무법
재무 무월
포교 교도
호법 교혜

▶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번지
전화: 0634)534-5502, 5503